

‘한달간 책 한권 읽기’ ‘그림책 공방’ 등 풍성

광주지역 도서관 올 첫 프로그램 ‘지구를 위한 탄소중립’ 등 진행 ‘책과 생활’ 작가 초청 북토크

새해가 시작되기도 벌써 한달이 다 되겠다. 새해를 맞아 ‘책읽기’를 다짐한 이들도 많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집 근처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책과 조금 더 친해져 보는 것은 어떨까.

지역의 도서관들이 성인, 청소년 모두를 대상으로 올해 첫 프로그램들을 마련, 시작할 예정이다. 아울러 독서서점에서는 작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도 펼쳐진다.

먼저 첨단도서관(광주시 광산구 장덕동)은 성인들을 대상으로 올 상반기 한달에 한권의 책을 읽는 ‘한달간 책한권 함께읽기’를 진행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오는 26일 채사장의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얇은 지식’을 시작으로 시인 손세실리아의 ‘설에서 부르는 노래’(2월23일), 손영미 작가가 쓴 ‘누가 환율을’(3월23일), 림태주 작가의 ‘너의 말이 좋아서 밀줄을 그었다’(4월27일)를 함께 읽는다. 또 소설가 한강의 ‘작별하지 않는다’(5월25일), 빅터 프랭클의 ‘빅터 프랭클: 어느 책에도 쓴 적 없는 삶에 대한 마지막 대답’을 읽고 이야기를 나눈다. 기운희 강사가 진행을 맡았으며, 온라인(zoom)으로 진행된다.

이야기꽃도서관(광주시 광산구 선암동)은 ‘초등겨울독서교실-신나는 메타버스 여행’(24-25일 오후 2-4시)과 청소년 겨울방학특강(메타버스와 함께하는 AI-SW 코딩교실)을 진행한다.

또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도슨트와 함께하는 도서관 놀이산책’을 오는 22일부터 4월30일(매주 토요일 오후 1시-3시)까지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도서관 공간 탐방과 ‘마음먹기 나무 조명등 만들기’(1-3주), ‘우리가족 반려동물(개운족) 화분 꾸미기(2-4주)’으로 구성됐다. 아울러 매주 토요일에는 그림책 동아리 활동가가 그림책을 읽어주는 ‘그림책 읽어주는 토요일’도 진행한다. 활동가가 추천하는 그림책 또는 이용자가 원하는 그림책을 읽어주는 시간으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문화정보도서관(광주시 남구 봉선동)은 초등 학교 저학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영어 그림책의 기적 Play with picture books’(18-21일)를 마련



푸른길 도서관이 진행한 겨울독서교실 ‘그림 읽어주는 도서관’ 모습.



했다. 이번 시간은 영어 그림책 ‘This is not my hat, I want my hat back’, ‘Little blue and little yellow’, ‘I love my white shoes’ 등을 함께 읽으며 참가자들이 영어에 흥미를 느끼고 영어 독서습관 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일곡도서관(광주시 북구 일곡동)은 ‘작지만 소중한 우리’(18-20일)를 마련했다. 아동의 권리에 대해 배우는 이번 시간에는 알랭 시체의 ‘우리에겐 권리가 있어’, 레베카 랭스턴 조지의 ‘말랄라 세상을 바꾼 아이’, 자넷 윈터의 ‘그레타 툰베리가 외쳐요’ 등을 읽는다.

운암도서관(광주시 북구 운암동)에서는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인 ‘지구를 위한 약속 탄소중립 2050’(26-28일)을 진행. ‘탄소중립 우리가 실천해요!’(정종영), ‘어린이를 위한 기후 보고서’(김남길), ‘마스크 벗어도 돼?’(과학을 위한 여성

과학자 모임) 등을 함께 읽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진다.

서구공공도서관은 오는 2월8일부터 15일까지 서구문화센터에서 그림책 읽고 만들기 독후활동을 통해 책과 친해지는 계기를 주고자 ‘그림책공방’을 진행한다.

독립서점 책과생활(광주시 동구 장동)에서는 작가를 초대해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북토크를 진행한다. 오는 22일 오후 2시에 열리는 이번 북토크에는 ‘출근하지 않아도 단단한 하루를 보낸다’의 저자 김은택·백종민 작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마련된다. 마흔 번의 한달살기로 널리 알려진 이들 부부는 이날 단단한 하루를 만들어가는 습관, 하고 싶은 일로 꾸리는 생계, 그리고 시간관리 등에 대해 들려준다.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국악으로 배우는 가야금 중주단’ 참여자 모집

루트머지국악연구소

루트머지국악연구소가 ‘국악으로 놀면서 배우는 겨울특강 가야금 중주단’ 2기 참여자를 모집한다.

2기 프로그램은 오는 2월3일부터 25일(매주 화·목요일 또는 수·금요일)까지 진행되며 7-13세 어

린이를 대상으로 총 40명을 모집한다. 프로그램은 가야금 레슨과 국악예술놀이를 구성됐다. 가야금 레슨 시간에는 동요 ‘산토끼’, ‘학교종’, 민요 ‘군밤타령’, ‘산도깨비’ 등을 연주하는 법을 배우며, 국악예술놀이 시간에는 단동심품 놀이, 전통악기 ‘박’ 연주, 매화아트, 사물놀이, 딱지치기, 아리랑 손치기, 율령 오르골 만들기 등을 체

험할 수 있다. 강사로는 전남대 국악학과 졸업 후 국가무형문화재 제23호 가야금산조 및 가야금 병창을 이수한 김다희와 전남대 국악학과 졸업, 현재 최옥삼류 보존회 회원, 광주가야금연주단 단원으로 활동중인 박재은이 나선다.

한편 루트머지는 전통음악인 산조의 자유스러운 형식으로 모두가 공감하고 즐길 수 있는 음악을 선보여 왔으며, 앞서 겨울특강 1기를 지난 4일부터 진행하고 있다. 문의 062-444-0767.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광주문인협회, 치유 문학 소통 프로그램

문학연구총서 발간·문학제 개최

광주문인협회(회장 탁인석·문인협회)는 코로나 3년차에 접어들어 올해 치유로서의 문학 소통 프로그램에 중점을 두고 다양한 사업을 펼칠 예정이다.

최근 문인협회가 발표한 ‘2022년 새해 설계’에 따르면 올해 ‘광주문학연구총서’ 발간을 비롯해 광주문학제 공연 등이 예정돼 있다. 또한 올해 하반기에 개최되는 ‘아시아문학페스티벌’을 광주전남작가회의와 함께 공동 주관하는 등 적극적으로 행사에 참여할 방침이다.

실질적인 문인들을 위한 사업으로 계간 ‘광주문학’에 작품 게재 시 원고료를 지급할 계획이다. 원고료 지급을 하지 않는 중소 문예지가 적지 않은 상황에서 문인협회의 지급 방침은 회원들에게 자부심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문인협회는 지난 1994년 발행된 ‘광주문학사’ 증보판 발간을 추진해 ‘광주문학연구총서’를 출간한다는 복안이다. 또한 제1회 박길무 문학상을

제정해 오는 3월 시행할 예정이다. 박길무 시인은 지난 1994년 ‘월간문학’에 시 붐비가 당선돼 등단했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전국 일반인 인터넷 백일장’을 비롯해 ‘광주 대표 작가 100인 결계 시화전’도 개최할 예정이다.

회원들의 친목도모와 시민들의 문화 향연을 위한 프로그램도 마련돼 있다. 지역 문화공간을 활용해 시낭송회, 시극 공연 등을 펼치고 평생 인문학 강좌도 열 계획이다.

이밖에 문학인 개별 작품 발표를 위한 문인협회 홈페이지 ‘개인서재’를 활성화하고 문인들의 축제 ‘광주문학제’ 공연도 내실있게 추진한다는 복안이다.

탁인석 문인협회장은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문학 창작에 열정을 쏟는 회원들이 있어 문협의 미래는 밝다”며 “올해는 좀더 내실있는 프로그램으로 회원들에게 다가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010-4538-9270.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지난해 6월 개최된 광주문인협회 회원들의 결계시화전 모습.

광주·전남발전협, ‘21세기 광주·전남’ 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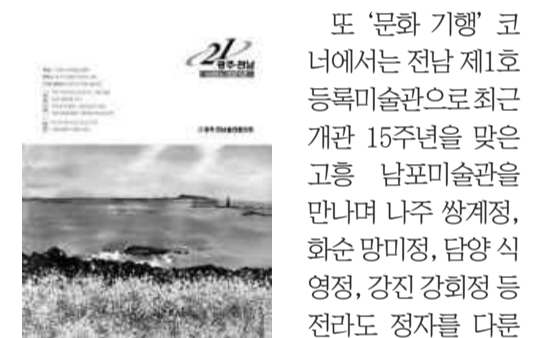
37회 무등미술제 지상전

(사)광주·전남발전협의회(회장 최영관)가 발간하는 ‘21세기 광주·전남’ 2021년 호가 나왔다.

특집으로는 ‘미래는 AI혁명과 함께’, ‘에너지산업의 전망과 과제’를 실었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박동 선임연구원의 ‘인공지능 시대를 위한 교육혁명’, 에너지밸리기업 개발원 임철원 원장의 ‘탄소중립의 해법은 그린수소’ 등 다채로운 글을 만날 수 있다.

‘힐링 전남-그곳에 가고 싶다’ 섹션에서는 코로나 시대, 여행지로 각광받고 있는 남도의 명소를 세세히 소개한다. ‘순례자의 섬 신안 기점, 소와도’, ‘진도. 멋진 사람들이 사는 곳’, ‘엘로우 시티 장성’, ‘힐링 해남, 희망의 세레나데’ 등이다.

다양한 문화 예술 관련 글도 실렸다. 국내외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미디어 아티스트 이이남 작가를 만나고 수십년 동안 모은 3만여점의 민속품을 전시하고 있는 비움박물관 이영화 관장의 이야기도 듣는다.



성 별교, 장흥 등 77번 국도를 따라 남도의 맛을 접하는 글이 펼쳐진다.

그밖에 한국화 부문의 이해전 작 ‘차이하는 클레’, 서양화 부문의 이영주 작 ‘세월의 초상 2’ 등 광주·전남발전협의회가 주최한 제37회 무등미술대전 대상 작품 지상전과 서양화가 노의웅 화백의 글과 그림 ‘고향의 향수로 조형된 나의 작품 세계’도 실렸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타자들을 향한 따스한 말건넬의 아득한 순간”
“실존적 비애나 결핍의 장막”을 자신만의 언어로 승화

진혜진 시인 첫 시집

포도에서 만납시다

추천사

“진혜진의 첫 시집은 ‘사랑’의 불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끝없이 ‘사랑’을 상상하고 실천하고 꿈으로 각인해가는 불가항력의 과정을 담은 격정적 고백록이다. 그 세계는 때때로 실존적 비애나 결핍의 악몽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시인은 그 장막을 뚫고 자신만의 시적 진실을 하염없이 노래해간다.”

- 유성호 문학평론가·현안대 국문과 교수

진혜진 시인 프로필 | 2016년 경남신문, 광주일보 신춘문예, 시산맥 등단 | 시집 『포도에서 만납시다』 | 2021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아크로문학창작기금 수혜 | 제11회 시산맥작품상 수상 | 도서출판 상상인 대표